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7.24~2025.07.3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소비쿠폰, 농업, 대응, 서비스, 기반
경제·관광	마을, 상승, 여행, 평가, 유통
지역·사회	물놀이, 범죄, 해안, 구조, 외국인

※ 분석 기간 : 25.07.24.~25.07.30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소비쿠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신청 현황 -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쿠폰 지급 초기 현장 민원 및 대응
	농업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제주DA' 공개 -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 강화 논란 -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업계 위기감
	대응	- 하원테크노캠퍼스 폐수 처리 주민 우려 대응 -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대응 및 제도 개선 - 기록적 폭염 대응 위한 도심 열섬현상 완화
	서비스	- 어린이·청소년 무료 교통카드 등록 서비스 오류 - 스마트 기기 활용 노인 돌봄 서비스 호평 -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비 지원 기반 마련 - 제주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 인프라 구축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마을	-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의 팔목할 성과 - 주민이 직접 알리는 '마을 여행 챌린지' - 농어촌형 워케이션 공간 '촌-피스' 개소
	상승	- 제주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올해 노지감귤 발매기 거래 가격 상승 - 2024년 제주 축산 조수입 4.0% 상승
	여행	- 관광업계 대상 700억 규모 용자 지원 - 대학생 '런케이션'에 숙박비 지원 - 카카오톡 '비짓제주' 여행 정보 서비스
	평가	- 제주삼다수 유통사 선정, 광동제약 신승 - 상호금융대상 평가, 제주 농협 10곳 수상 - JDC, 경영평가 '미흡'에 비상경영 돌입
	유통	- 제주삼다수 유통권, 광동제약에 귀속 - 국내 첫 미술품 면세 유통 시작 - 공공배달앱 '먹깨비' 쿠폰 혜택 강화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물놀이	- 잇따른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수난인명구조장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범죄	- 제주시 공무원, 수억 원대 횡령 - 부동산 대금 불만, 살인미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단속
	해안	- 제주 해안가, 해파리떼 습격 - 해양 폐기물, 해양생물 위협 - 연산호 군락지 보전 및 관리 필요
	구조	- 멸종위기 붉은바다거북 구조 - 음주 관광객, 한밤중 해상 추락 구조 - 폐어구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 논의
	외국인	- 제주경찰청, 외사 기능 부활 촉구 -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 성과 - 외국인 대상 응급처치 교육 확대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7월 24일~7월 3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71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4건, 경제·관광 200건, 지역·사회 36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소비쿠폰, 농업, 대응, 서비스, 기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소비쿠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신청 현황 · 21일부터 지급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7일 자정 기준 지급 대상 66만 1200명 중 약 73.4%인 48만 5348명이 신청 완료.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65.2%, 탐나는전이 34.8%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화폐 선호도 보임 ·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됨. 28일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시작
-------	------	---

정치·행정		-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쿠폰은 동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특히 도내 하나로마트는 모든 결제 수단으로 소비쿠폰 사용 불가 · 오영훈 지사, 보성시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쿠폰 사용 독려. 소비쿠폰 지급으로 탐나는전 가맹점도 1주일 새 476곳이 신규 신청하는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소비쿠폰 지급 초기 현장 민원 및 대응 · 소비쿠폰 시행 첫 주, 읍면동에 민생대응 및 이의신청 전담팀을 구성해 미성년 자녀 신청 방법, 대리 신청, 사용처 문의 등 주요 민원사항에 적극 대응.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총 8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진행 중 · 기존 탐나는전과 구분되지 않고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지류형 상품권 문제점을 개선하여, 28일부터 지급되는 지류형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구와 사용기한을 명확히 표기
	농업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제주DA' 공개 · 제주도 농업기술원, 34종의 농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농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DA' 공개 및 8월부터 시범 운영. AI 기반 병해충 예찰·예보, 스마트 영농일지, 생산량·가격 예측 기능 제공 ·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전통 농업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오영훈 지사는 "생산자가 주체가 되는 농정 방향을 구체화한 결과"라며 모든 농가의 데이터 입력과 활용 참여 강조 -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 강화 논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준인 출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예고. 폭염·가뭄 등 기후 변화로 출현율이 낮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농가 강력 반발 · (사)제주당근연합회, "씨앗 부족, 재파종 부담 등 영농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제도 개선안 시행 유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는 농식품부에 출현율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 -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업계 위기감 ·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 제기. 특히 오렌지 수입 관세가 완화될 경우 제주 주력 품목인 감귤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급 불균형 등 심각한 피해 우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 불안감 증대와 국내 축산업계 잠식 우려 확산.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농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강력 반대 및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정치·행정	대응	- 하원테크노캠퍼스 폐수 처리 주민 우려 대응 · 당초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폐수를 자체 처리 후 도순천에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식수원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힘. 도순천은 강정천과 이어지는 서귀포시민의 주요 식수원 · 제주도,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전면 수정. "청정 환경과 도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 표명 -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대응 및 제도 개선 · '중국공산당 선거 개입' 등 음모론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논란. 제주도 전수조사 결과, 114건 중 설치 방법·기간·수량 등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 26건 적발 및 철거 · 단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편해 문구 제한 등 제주형 별도 관리 기준 마련 추진 - 기록적 폭염 대응 위한 도심 열섬현상 완화 ·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시는 도로 복사열과 열섬현상 완화를 목표로 살수차량 운영을 강화. 살수차 12대를 도심과 읍면에 배치해 하루 168톤 이상의 물을 도로에 살수 ·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관광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며, 폭염특보 발효 시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늘려 시민 체감온도 저감에 주력
	서비스	- 어린이·청소년 무료 교통카드 등록 서비스 오류 · 8월 1일부터 만 13~18세 청소년까지 버스비 전액 지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용 교통카드 등록 과정에서 각종 오류 발생. 전용 누리집 접속 지연, 로그인 오류 및 '등본상 자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 표출로 학부모 민원 속출 ·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대상자 8만 2천 명 중 2만 건만 등록 완료되어 6만여 명이 미등록 상태.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카드 제시만으로 무상 탑승을 허용하며 시스템 정상화에 나설 방침 - 스마트 기기 활용 노인 돌봄 서비스 호평 ·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AI 돌봄 스피커와 AI 케어콜을 활용한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시행. 말벗 기능, 음악 감상, 긴급 SOS 호출, 주 2회 안부 전화 등 정서 및 안전 지원 · 서비스 시행 이후 신청자가 몰려 확보한 스피커 100대가 모두 소진되고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높은 호응. 복통을 호소한 어르신이 긴급 SOS를 호출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 입증 -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주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640명 모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성인 건강 코칭, 장년층 정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0년간 차량에서 생활하던 거주불명 50대 남성을 8년간의 설득 끝에 구조, 주거 마련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상 회복 지원

정치·행정	기반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비 지원 기반 마련 ·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기존 국비·지방비 5:5 매칭 원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연간 약 6억 원의 도비 부담 해소 · 센터 위상이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격상되어 전국 단위 치유 기능을 수행하게 됨. 제주도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방문 치유, 이동상담실 운영 등 4:3 유족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 제주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제주 해안사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국 최고 수준의 훼손율을 보이는 제주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조례안은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담음. 특히 도유지 해안사구를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매각·양여 등을 금지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 인프라 구축 · 제주도, 전국 최초로 디지털·AI를 실제 농업에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 '제주 DA'를 공개하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본격화. 농업 데이터 수집·분석 및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농업디지털센터 설립 및 운영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기반 구축사업'을 총 3단계로 추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고도화, AI 확대 도입 등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 인프라 조성.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마을, 상생, 여행, 평가, 유통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마을	-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의 팔목할 성과 · 제주관광공사가 '카름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마을여행 전담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사업이 상반기에만 45개 상품을 통해 8,049명의 여행객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이는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결합한 성공 사례로, 운영인력 부족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로컬관광 구조를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하반기에는 체류형 상품을 본격 운영할 계획 - 주민이 직접 알리는 '마을 여행 챌린지' · 제주관광공사가 유튜브 채널 '비짓제주'를 통해 현지 주민이 직접 출연하여 마을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제주 마을 여행 챌린지' 숏폼 영상 시리즈를 공개 · 이장, 해녀 등 마을 터줏대감들이 직접 출연해 60초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마을의 정서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새로운 홍보 방식으로 주목 - 농어촌형 위케이션 공간 '촌-피스' 개소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에 농어업 특화 위케이션 공간 '대정읍 촌(村)-피스'가 문을 옴. 노후된 행정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오피스와 커뮤니티 공간
-------	----	---

경제·관광	마을	으로 조성, 청년 인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특히 하모2리 마을회가 직접 행정재산을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위케이션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기대
	상승	- 제주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7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6.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상승,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광객 회복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 · 현재 경기판단 지수가 17포인트 급등하는 등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주택가격 전망은 하락하고 물가 전망은 상승하여 부동산과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 - 올해 노지감귤 발매기 거래 가격 상승 · 2025년산 제주 노지감귤 포전매매(발매기) 거래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음. 서귀포시는 3.75kg당 평균 5000원 이상, 제주시도 4000원 선으로 지난해 대비 최대 25%가량 높은 가격을 기록 · 이러한 가격 상승은 올해 감귤 생산량 감소 전망과 사과, 배 등 다른 경쟁 과일의 수급 불안정이 주요 원인. 상품성 높은 과원을 선점하려는 유통상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짐 - 2024년 제주 축산 조수입 4.0% 상승 · 지난해 제주지역 축산 조수입이 1조 3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537억원)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함. 이는 생산량과 거래량 확대, 가격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023년의 소폭 하락세를 극복한 것임 · 한육우(12.6% ↑), 낙농(26.6% ↑), 말(3.5% ↑) 등 다수 축종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양돈(-2.0% ↓)은 경락가격 하락, 양봉(-16.1% ↓)은 꿀벌 폐사 피해로 조수입이 감소하며 축종별로 희비가 엇갈림
	여행	- 관광업계 대상 700억 규모 융자 지원 · 제주도가 경영난을 겪는 도내 관광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7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시함.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준금리보다 0.75%p 우대되며, 특히 관광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개선자금은 연 1.5%의 초저금리로 제공됨.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 - 대학생 '런케이션'에 숙박비 지원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여행지에서 학습을 병행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런케이션(Learning+Vacation)' 참여 대학생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청년층의 제주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 또는 제주대 계절학기 수강생이 대상임

경제·관광	여행	며, 민간 숙박시설 이용 시 1박당 최대 5만원, 총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요구 - 카카오톡 '비짓제주' 여행 정보 서비스 · 제주관광공사가 카카오톡 채널 '비짓제주'를 통해 제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매월 말, 공사가 선별한 맞춤형 여행 정보를 메시지로 자동 수신 ·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구독자 수가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계절별 추천 여행지, 축제 정보, 디지털 관광증 연동 등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 기능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임. 8월부터 정기 발송 체계로 전환될 예정
	평가	- 제주삼다수 유통사 선정, 광동제약 신승 · 국내 먹는샘물 1위 '제주삼다수'의 도외 유통 위탁판매사 선정 입찰에서 현 유통사인 광동제약이 11개 업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제안서 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 · 이번 재선정으로 광동제약은 2029년까지 총 16년간 유통을 맡게 되어 최장수 파트너가 될 전망. 기존 유통망 외에 대형마트와 SSM 물량까지 담당하게 되어, 삼다수 전체 물량의 90%를 유통하게 됨 - 상호금융대상 평가, 제주 농협 10곳 수상 ·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 평가하는 '2025년 2분기 상호금융대상'에서 제주지역 10개 농협이 우수 사무소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룸 · 하귀농협이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주남원농협, 표선농협 등 9개 농협도 우수상에 이름을 올림. 이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제주농협의 뛰어난 경영 안정성과 사업 성과를 입증한 결과 - JDC, 경영평가 '미흡'에 비상경영 돌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음. 주요 수입원인 제주국제공항 지정면세점의 매출 급감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연이어 사퇴했으며, JDC는 객진규 미래투자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2025년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
	유통	- 제주삼다수 유통권, 광동제약에 귀속 · 제주삼다수의 제주 외 지역 전국 유통을 담당할 위탁판매사로 현 사업자인 광동제약이 다시 선정됨. 11개 대기업이 참여한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되며, 2012년부터 이어진 파트너십을 4연속 이어가게 됨 · 2026년부터 4년간의 계약을 통해 대형마트, SSM까지 유통망을 넓혀 전체 도외 물량의 90%를 담당하게 될 예정. 광동제약의 안정적인 유통망과 시장 이해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경제·관광	유통	- 국내 첫 미술품 면세 유통 시작 ·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이 미술품을 면세품으로 정식 판매하는 'J-Art 매장'을 개장함. 2022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이 면세로 유통되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 · J-Art 매장은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작품 해설을 제공하는 등 체험형 소비 공간으로 운영됨. 예술과 관광, 유통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지역 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공공배달앱 '먹깨비' 쿠폰 혜택 강화 ·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조건 완화에 따라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혜택이 대폭 강화됨.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이 지급되며, 월 1회였던 지급 횟수 제한도 폐지되어 조건 충족 시마다 쿠폰을 받을 수 있음 · 여름 휴가철 배달 수요 증가와 맞물려 도내 소비 활성화 및 외식업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주도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자체 배달비 지원 사업 재개도 추진 중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물놀이, 범죄, 해안, 구조, 외국인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물놀이	- 잇따른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 최근 이틀간 제주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관련 사망사고가 3건이나 잇따라 발생함. 괄지해수욕장, 세화포구, 월령포구 등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던 10대부터 40대까지의 관광객 및 도민이 목숨을 잃었음. 특히 세화포구에서는 40대 관광객이 높은 파도에 휩쓸린 자녀들을 구조한 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제주도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함.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일 때는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로 인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 -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제주도는 잇따른 물놀이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함. 주요 대책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출입을 통제하고, 물놀이객이 많은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감시 체계를 보강하는 방안이 포함됨. 또한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방송 장비를 활용한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하기로 함 · 특히 어항 구역 내에서의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임.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 순찰을 진행할 계획임. 이는 최근 사고가 지정 해수욕장보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포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 - 수난인명구조장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해안가와 하천변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 402개소를 9월부터 소방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힘. 기존에는 소방서와 행정시가 분산 관리하여 유지보수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 주체를 소방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 · 이번 통합 관리를 위해 8월까지 소방과 행정시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기존 행정시 예산도 소방으로 이관하여 통합 집행할 예정임. 또한, 장비의 무단 사용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인명구조함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됨.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 올레길 등에 설치된 119구급함 36개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범죄	- 제주시 공무원, 수역 원대 횡령 ·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수년에 걸쳐 수역 원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 해당 직원은 판매소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전산 시스템에는 주문

지역·사회	범죄	이 취소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음. 제주시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횡령 추정액을 약 6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음 · 이번 사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하며 내부 감독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 제주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시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하며, 주문 및 재고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2년 주기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부동산 대금 불만, 살인미수 · 부동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됨. 피의자는 지난 27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무허가 공기총을 들고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과거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았으나 1년 넘게 잔금 5억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경찰은 피의자가 총구를 직접 겨누지는 않았지만,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단속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찰이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섬. 이번 단속은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 ·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쿠폰만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가로부터 환전액을 편취하는 행위, 할인 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사기, 쿠폰이 입금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임. 경찰은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온라인상 불법 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
	해안	- 제주 해안가, 해파리떼 습격 ·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제주 해안가 전역에 악독성을 지닌 '푸른우산관해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7월 한 달간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해파리 쏘임 사고는 19건으로, 6월(3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함 ·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해파리 유입량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표선, 함덕, 김녕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음. 이에 소방당국과 안전요원들은 매일 해파리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개체 수가 많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피서객들에게 해파리를 발견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지역·사회	해안	- 해양 폐기물, 해양생물 위협 · 제주 해상에 떠다니는 페어구나 플라스틱 등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며 해양생태계와 선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최근 2년 사이 수거된 부유 폐기물은 93톤에서 180톤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선박의 부유물 감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음. 특히 페어구에 꼬리가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또다시 발견되는 등 해양보호생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는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합동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에 나섬. 어민이나 선박이 부유 폐기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관공선이나 해경이 즉시 출동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제주도는 수거된 폐기물을 분석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쓰레기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 - 연산호 군락지 보전 및 관리 필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의 지정 구역이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생태 등급에 따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용역 결과, 일부 지정 구역은 연산호 군락이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미지정 구역인 가파도 해역에서는 자색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풍부한 산호 군락이 발견 · 이에 따라 연구진은 생태 등급을 기준으로 자연유산 지정 구역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함. 특히 가파도, 문섬, 범섬, 지귀도 해역 등 생물 다양성이 높은 1~2등급 지역을 집중관리 해역으로 선정하고, 가파도 해역을 새롭게 보호 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
	구조	- 멸종위기 붉은바다거북 구조 ·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등껍질에 큰 골절상을 입은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이 발견되어 구조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은 협력하여 거북이를 안전하게 해안가로 이동시킨 후,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인 아쿠아플라넷에 인계하기 전까지 산소 공급 및 수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 ·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은 길이 약 70cm, 무게 약 20kg으로 등갑에 지름 21cm 크기의 상처가 있었으나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음. 아쿠아플라넷 측은 해당 거북이 기력이 없고 상처가 심해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해경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무리하게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 음주 관광객, 한밤중 해상 추락 구조 · 제주시 한림항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 관광객이 한밤중에 바다에 빠졌다가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됨.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퐁당' 소리를 듣고 주변에 놓인 휴대폰과 카드를 발견한 뒤 즉시 파출소에 신고했으며, 해경은 출동 10여 분 만에 물에 빠진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

지역·사회	구조	· 구조된 여성은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물에 빠진 경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제주해경은 주민의 빠른 판단과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익수자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야간 해안가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함. 이번 사례는 여름철 해안가 음주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줌 - 폐어구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 논의 · 제주 연안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와 '행운이'에 이어, 또 다른 새끼 돌고래가 꼬리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린 채로 발견되어 우려를 낳고 있음. 새로 발견된 새끼 돌고래는 어미와 함께 유명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발견된 '종달이'와 유사한 형태로 낚싯줄이 얽혀 있었음 · 제주도는 이미 성체 돌고래 '행운이'에 대한 구조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구조 대상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연이어 발생하는 해양생물 피해는 제주 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낚시 관리와 해양 폐기물 수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외국인	- 제주경찰청, 외사 기능 부활 촉구 ·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외사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이는 지난해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6년 신설되었던 제주경찰청 외사과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최소한 '계' 단위의 전담 부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 · 김 청장은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이 성과를 거두는 등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함. 그는 경찰청 본청에 제주 실정에 맞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외사 기능을 강화할 전담 부서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 성과 ·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100일간 추진한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자는 237명이 검거되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특히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20% 급감함. 이는 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제주의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 · 이번 특별대책은 강력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응함.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총 4347건의 무질서 행위를 단속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임.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제주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 효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중국 총영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입국 전 관광객 대상 교육도 강화하고 있음 - 외국인 대상 응급처치 교육 확대 ·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언어와 국적의 장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함. '언어를 넘어, 생명을 잇다'를 주제로 한

	외국인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교육 영상을 활용하고,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이 통역을 지원하며 실습 위주로 진행됨. 서귀포수협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앞으로 도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